

9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2009

가정예배

고린도전서 · 고린도후서

아가서 · 이사야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세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9

충현의 만나

2009

가정예배

고린도전서 · 고린도후서

아가서 · 이사야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③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 ④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꾼이 양성(딤후 4:6)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딤후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 ⑦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 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⑧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 ⑨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나의 소망, 나의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섬을 주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울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참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요 7:38).

2009년 9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사회자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가 정 예 배

(매일 성경 묵상)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고린도교회는 은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참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베풀어집니다(3절). 성령의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은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과 일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4~6절).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 것은 개인의 영광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듯, 성도들은 은사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몸에 비유한 것도 이 진리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12~26절).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신비주의적인 접근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 보다는 능력의 나타남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겨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은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만을 드러내어 십자가 복음의 증언하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채우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7)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사랑의 장’으로 사랑의 절대적 우위성(1~3절)과 속성(8~13절), 그리고 성령의 다른 은사와 비교하여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4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7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견디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견디신 영원한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사랑의 은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긍정적인 특성으로 ‘해야 한다’와 부정적인 특성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를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말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분명히 정해놓고 절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은사는 일시적인 것으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끝나지만, 사랑의 은사는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8절).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로서 모든 은사들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

기도 제목 ① 매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방언과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은사 활용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26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4절) 예언이 방언보다 더 우월함을 논증합니다. 그 이유는 예언이 교회와 성도의 덕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반면,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도리어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이 불신자들에게 믿음의 표적이 된다고 해도, 그것을 무질서하게 사용하면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됩니다(23절).

교회에서 방언을 하려면 세 가지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한 모임에서 두세 사람만이 할 것. 둘째,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할 것. 셋째, 반드시 통역할 것.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방언보다 예언을 하게 되면, 불신자들이라 할찌라도 예언을 통해 책망을 받고 마음 속에 숨은 죄악까지 드러나게 되어 깨닫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25절).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예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 역시 예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 이 두 은사는 예배의 질서를 위해 잘 이해하고 교회에서 사용하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며 자신의 교만함이 되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순종이 더 귀함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움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전 14:40)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을 먼저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8절). 이 감격으로 율법을 사랑하던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10절)라고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구약 성경과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통해 실증하고 있습니다(1~11절).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시 못했을 것이며, 복음 전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12~34절).

우리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이 감격 때문에 우리도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있을 때 이루어 집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고전 15:51).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 그 날, 우리의 썩을 육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전 15:54)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여 미련함을 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천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가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한 연보를 미리 준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2절).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서 교회 간의 협력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적인 면을 포함해 여러 면에서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여러 면에서 매우 불안정하여 자립할 수 없으며, 교회 구성원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위기에 처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교회 간에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는 비단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만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가 문안하고 그들을 살피주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랑과 화평 가운데 더욱 공고하게 이 땅 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복종하며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16절)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문안하며 믿음의 길, 좁은 길, 순종의 길을 함께 가기 원합니다.

“이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전 16:16)

기도 제목 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본서는 논리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짜이지 않고, 매우 정적이며 친근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고린도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긴장이 완화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서론부이자, 특히 사도권(1:12~7:16)에 대한 긴 변호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사도적 권위로써의 문안 인사(1~2절)와 환난 중에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에 대한 감사(3~11절), 사도 바울 자신의 진실성에 관한 변호(12~14절), 선교 여행 경로의 변경에 따른 변호(15~24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고난 받기로 예비된 존재입니다(딤후 1:8, 2:3). 하지만 고난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능히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벧전 1:3~12). 바울이 본문을 통해 자신의 사도권과 전파한 복음의 정당성을 변호한 것은, 그의 사도권 부인이 결국 그가 전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은총을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은 고난을 기뻐하며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말하는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과 순종으로 고난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고후 1:6)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설립 56주년 기념주일이 제6차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의 방문들처럼 바울이 기쁨을 주고 받아야 할 고린도교회에서 도리어 슬픔과 근심만을 얻게 될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바울의 기쁨은 다른 성도들의 영적 기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었기에, 직접 그들의 근심된 모습을 대함으로 서로가 슬픔과 아픔을 겪기 보다는 그들을 권면하는 서신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1~4절). 또한 그들의 영적 성숙을 도모하여 그들이 얻게 되는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은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듯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삼가하며 절제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한 심령들을 책벌하되 그의 파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 구원과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 애쓴 모범적인 목회자였습니다(5~8절).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 된 자로서 무한한 영적 자부심을 가진 자였습니다(15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복음의 증인된 우리는 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지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납니다(16절). 그 복음은 뜻 심령들을 소생시키는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 2:15)

기도 제목 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고린도 교인 중 일부는 바울이 어떤 권위 있는 단체나 사람의 천거서가 없다는 이유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배척하려 했습니다(1절). 그 당시에는 한 개인의 권위가 그를 파견한 단체나 어떤 특정 인물의 천거서에 의해 판별되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그 당시 요구되었던 천거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사도권이 신적인 기원을 지닌 것이며 또한 바울의 선교 결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가장 명확한 추천서요 증인임을 강조했습니다(2~5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얻는 신약시대의 직분이 의문의 법으로 얻는 구약시대의 직분과 비교할 때에 우월한 영광을 가짐을 지적합니다(8~9절).

구약의 율법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으며, 도리어 인간을 정죄하며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롬 7:9, 11). 바울은 덧붙여 새 언약이 생명을 잃고 시들어가는 낡은 율법을 능가하는 영광을 준다고 확신하였습니다(6~11절). 이러한 확신에 기초한 사역은 담대하고 솔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12절). 오직 빛되신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 복음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구약의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쓴 것처럼 아직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못한 까닭(15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평과 불신앙, 완고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수건을 벗고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고후 3:16)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새 언약에 입각해 직분을 맡은 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1절)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2절)라고 합니다. 거룩한 직분을 맡으면서도 깊이 감추어진 부끄러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수 7:1).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다”(5절)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음을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7절). 우리는 분명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며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있는 구원의 복음, 즉 보배를 소유했기에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벧전 2:7).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권세자 사탄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함을 소망함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를 보배로운 십자가의 은총으로 채우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남으로 더욱 주님의 복음 증언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 4:10)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하게 하소서. ② 당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세우는데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단지 행인이요,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 성도가 가진 육신은 나그네 삶에서 잠시 거하는 임시 처소인 장막에 불과합니다. 이 임시 처소가 무너지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1절).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7절 : 엡 4:24).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재창조에 의해 시작된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피상적이 아닌 본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신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본래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유대 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로서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행 22:27~29).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복음 전파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인자와 진실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고린도교회를 향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1절)고 권면합니다. 고린도교회는 참으로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지만, 많은 문제도 일으키고 갈등도 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잊혀져 가고, 그들의 마음이 좁아진 것을 알았습니다(12절).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마음을 넓혀 그리스도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말라며 이교도와 의 단절을 촉구합니다(14~18절). 고린도는 심각할 정도로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15절)라고 선포합니다. 대조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4~5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복음 앞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와 공로 때문이 아니며,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총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함과 죽은 자 같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임하였고, 은혜 베풀 날과 구원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총의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무명한 자, 가난한 자, 아무 것도 없는 자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고후 6:18)

기도 제목 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가정의 머릿돌이 되게 하소서. ② 찬양위원회와 9개 찬양대, 2개 연주대가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친 백성된 자들의 성결한 삶을 추구했던 바울은 이제 정감 어린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교회와 진리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취했던 행위들을 변론하며, 그런 변론을 기반으로 하여 더 이상 자신을 배척치 말고 영접해 줄 것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호소합니다(1~4절). 여기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토록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들에 대한 애정이었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킨 거룩한 충성의 결과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한 편지에 대해 후회도 하였으나, 그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9~10절).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시킨 근심은 하나님을 따르는 근심이며, 경건한 근심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관심은 이제 죄를 짓고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과거의 세상을 향해 가던 자신의 태도, 지성, 감성, 의지의 완전한 돌이킴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영접하게 합니다(11절). 그러므로 회개는 죄 사함을 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성령을 받아 신실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행 2:36).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근심을 주사 진정한 회개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고후 7:10)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을 위에 서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은 기근에 시달리는 예루살렘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고린도 교회가 구제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10~11절). 그러나 많은 액수의 연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시험이나 분쟁에 휘말릴 것을 염려하여 책임자 선정에 매우 신중을 기합니다(20~21절). 그리하여 마침내 그 일을 맡을 책임자로 자신의 동역자인 디도를 선정하여 고린도교회에 파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디도가 자신의 충실한 동역자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만한 충성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23절).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마게도냐 교인들보다 먼저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루살렘교회를 위한 헌금을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일을 마치지 못했습니다(10절). 하지만 마게도냐교회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힘에 넘치는 기쁜 헌금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좋은 의도에 준한 좋은 실천을 고린도교회에 촉구했습니다. 고린도교회나 예루살렘교회 할 것 없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채움으로써 서로 돌보는 일에 균형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13~15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서로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에서 그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출 16:18). 하나님의 몸 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고 나누며, 하나 되는 거룩한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 사랑에 자신을 내어 드리는 헌신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고후 8:2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일부를 감사함으로 즐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 전파에 쓰이는 귀한 물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 헌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신 16:16 : 고전 16:1).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가늠합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사랑을 측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 헌금이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즐겨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해 한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 자랑의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이 약 1년 전부터 예루살렘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사실을 마게도냐 등지의 교회들에게 자랑함으로써 그곳의 교회들이 자극을 받아 뒤늦게나마 구제 헌금에 동참토록 했습니다(2~3절). 실로 헌금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 마음으로 즐겨 냄이 마땅합니다(7절).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며,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에 우리의 헌금이 쓰입니다. 모든 착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언합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고후 9:14)

기도 제목 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소서. ② 총현의 성도들이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4절).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며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였지만,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담대히 대하였습니다(2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의 적대자들인 거짓교사와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5절). 바울이 더욱 강조하는 것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6절)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온전한 복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14절). 바울의 겸손과 온유함이 강조되다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려는 바울의 중심을 놓치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간절히 외치는 그의 변호는 바울의 몸의 약함도 아니요, 자랑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온전한 복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복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우리를 복음의 증언자로 세웁니다. 우리 약함의 자랑도 지나치면 교만함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좁은 길 함께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후 10:5)

기도 제목 ① 우리 교회가 시몬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다고 고백하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는 자랑할 일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배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23~27절)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받은 고난에 대한 자랑보다 모든 교회를 염려함으로 날마다 내 속에서 놀리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육신을 따라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에게 교회를 염려하며 놀리는 일은 우리에게도 같은 영적인 호흡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는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교를 몇 번 다녀왔다.”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주일 드려지는 선교기도회에 얼마나 동참하고 계십니까? 선교지에 우리가 전도했던 영혼을 위한 놀림이 얼마나 있으며, 교회를 향한 놀림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를 염려한다.”며 말만 늘어놓는 우리는 아닙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고난을 우리 몸체에 채우기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29절)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후 11:30)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교회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육체에 가시를 없애 주길 간구한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7절)라고 간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세 번의 기도를 말씀합니다. 도세의 기도(신 3:23~29), 예수님의 기도(마 26:39), 바울의 기도(7~10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가르치는 성경의 기도를 이룰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복음 증언자로 세우는 능력입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바울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9절)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가 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간구가 진실로 바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육체의 가시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오직 십자가를 붙들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읍시다. 그런 후에 영원의 세계가 열리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 12:9)

기도 제목 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②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롬 1:1)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약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 스스로 약함을 선택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빌 2:7)를 가지사 인자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약함이 결코 육체적, 정신적 약함이나 무기력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약함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약함이며, 하나님께 복종하여 자신을 포기하는 약함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약함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 약하나 ... 살리라”(4절)는 그리스도의 약하심 속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약함과 강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강함’을 ‘살아남’의 개념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약함을 통해 ‘강함’의 완성인 ‘부활의 그리스도를 따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약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의 최절정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약함을 우리도 덧입어 부활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이루신 것을 믿으며,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음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입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약하심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고후 13:4)

기도 제목 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의지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솔로몬은 아가서의 서두에서 솔라미 여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으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2~3절). 솔로몬은 자신의 사랑을 포도주와 당시 왕이나 왕비, 귀족들이 사용하는 품위있고 값비싼 향기름(나드향)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솔라미 여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솔라미 여인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이루어진 거룩한 사랑을 비유합니다. 솔로몬이 솔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엡 5:2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실 만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참된 가치와 영적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하리라”(마 16:18). 십자가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돌이 됩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아 1:15)

기도 제목 ① 영으로 심어 생명과 평안을 거두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구원의 초대장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솔라미 여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1절). 사론은 평원을, 수선화나 백합화는 그리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특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부르심의 순종에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숨김없이 아뢰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죄 사함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막 14:42)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대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자고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좁은 길의 부르심은 분명하지만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대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신 동안에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두 다 도망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골고다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일어나 다시 회복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 어여쁜 자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 2:10)

기도 제목 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 ② 교사 양성부 및 찬양대원 양성부 과정을 통하여 보혈로 충만한 십자가의 정병들이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 내지 못하였노라”(1절). 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즉 임마누엘의 은총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솔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그 자체가 방황의 연속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4). 신자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2절). 큰 길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좁은 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을 통하여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마 7:13).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며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을 신자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아 3:2)

기도 제목 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여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7절).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눈에 술람미 여인은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투성이인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어떤 아름다움도 의도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죄인의 모든 흠이 가리워졌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 3:25).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골 1:22). 십자가를 허락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총을 덧입어 오늘도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아 4:12)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보잘것 없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초청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총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사 55:1~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고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을 부르십니다. 소망 없는 인생을 부르십니다. 죄성에 속박되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요 4:14).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인생의 참된 구원과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의 은총을 깨닫고 난 후,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쳤습니다(행 20:22). 십자가 복음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사랑히므로 병이 났다”(8절)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안타까운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은총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아 5:16)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은총을 순종과 열린 마음으로 채움 받게 하소서. ② 예배와 집회를 수종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2절).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까지 주십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 떼를 먹이는도다”(3절).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요 15:4).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십자가 복음의 은총을 더욱 갈망합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는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살전 5:10).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복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일 4:1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의 은총을 얻습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아 6:3)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과 열린 마음으로 가득 채움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신체를 시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시적 표현은 하나같이 신약의 교회와 신자를 예표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 둔 것”(13절)을 네게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원래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아 1:5~6). 그러나 그녀는 솔로몬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교회와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골 1:21~22). 2000년 전 예수님이 흘린 피가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 비밀의 은총을 우리는 간직하였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교회와 신자를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다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교회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을 심히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롬 10:15).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르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신자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엡 6:14).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아 7:12)

기도 제목 ①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사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1~2절). 솔로몬은 솔람미 여인과 남매 관계였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소망이며, 늘 함께 하고 싶은 절실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솔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이 확고부동합니다. 이처럼 신자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9).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교제는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화목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엡 2:16).

솔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은 그침이 없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6절). 아가서에 기록된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인을 맞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과 생명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그 가치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합니다. 신자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 귀한 사랑을 선물로 받았습니대(롬 5:5~6). 십자가만 자랑하는 은총의 도구가 되십시오. 가장 못난 우리를 가장 귀한 복음을 증언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증거하지 맙시다(갈 6:14).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아 8:6)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십자가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사야서는 유다 왕 웃시아 때부터 므낫세에 이르기까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장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거역한 행위와(2~9절),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형식적인 제사와 무자비한 악행이었습니다(10~17절). 그러나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와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완전히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그들에게 호소하셨습니다(18~20절).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18절)고 하시는 이 부름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28~31절).

죄에 대한 심판은 엄하고 무섭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은혜와 심판을 뜻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곳에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 땅에는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교회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유에 나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온 몸이 성한 곳이 없고 황폐할 만큼 병들었다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사 1:18)

기도 제목 ①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학생들에게 십자가 복음만을 확신있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사야의 특징 중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 회복될 왕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타락하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백성에게 회개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살길임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장에 나오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은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교만히 행하여 계속해서 행악하는 자들은 메시아의 도래 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후반부에서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거듭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죄악에 물들게 된 주요 원인은 이방 나라의 영향이었습니다(6~9절). 그 결과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 우상 숭배, 군사적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것들을 철저히 멀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로 이방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며 교만해졌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과 인생 뿐인 이방을 의지하지 말고,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11절)고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며(5절),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인생을 의지하지 맙시다(22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사 2:22)

기도 제목 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육적 질병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1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뢰하며 의지합니까? 유다의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할 때 성경은 보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11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듯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초점을 맞추며 믿음으로 오직 주만 따르는 것입니다. 겸손히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의 가는 길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 아니며, 인간들에게 인기를 받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길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하여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걸음씩 순종함으로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며 영원의 길을 향해 갑시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실존적인 믿음의 실천을 이루는 역사가 이 성전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사 3:10)

기도 제목 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 권사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외면하여 공의와 질서가 사라지고 부패와 강포가 횡행하는 시대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칫 의심과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끝까지 시온에 남아 있는 자들(3절), 천막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시온(예루살렘)을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4~5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갖는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의인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의 “그 날에”는 심판의 날이요 수치의 날이며 서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라면, 2절의 “그 날에”는 회복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며 여호와와 짝이 되는 날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키실 때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와 짝’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뜻하며, ‘그 날’은 시험과 역경을 인내한 후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고 살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친 백성 삼으시며 그들을 통해 유다가 회복될 날을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인간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날에는 심판하는 영광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듯 우리의 죄악을 씻기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약 5:8). 그 날을 늘 기다리며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사 4:3)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천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로 1:1)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구역예배

9월 구역교재 초점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어떤 소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장 먼저 성경을 읽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육체와 감정,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쉼을 주려고 부르십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 예수님께 나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쉼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금요모임	본문	제목	초점
0904	누가복음 22:14~23	성찬식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자
0911	마태복음 11:28~30	와서 쉬을 얻으라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쉬을 누리자
0918	요한복음 13:36~14:12	신자의 소망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참 소망을 갖자
0925	시편 119:103~105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결론 및 적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소요시간 25분	소요시간 15분

1과 성찬식

| 초점 |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자

| 찬송 |

찬송가 232장 유월절 때가 이르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 본문 | 누가복음 22:14~23

¹⁴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¹⁵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¹⁶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 ¹⁷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рода 하시니 ¹⁸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후로 교회는 성만찬 예식을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특별한 예식을 훨씬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해야 할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눅 22:10~13

※ 이번 성찬식을 준비하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누어 보십시오.

성만찬의 식탁에는 떡과 잔이 있습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며, 잔은 그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에게 참생명을 주었고, 그분의 피는 우리와 새 언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성만찬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 성만찬이 나에게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기념한다

성만찬은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기념합니다.

눅 22:19~20 / 또 떡을 가져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로 세우는 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만찬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 고린도전서 15:3~4 말씀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 써 보십시오.

복음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성만찬은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기념하게 합니다.

갈 2:16

완전한 죄 사함을 기념한다

성만찬은 완전한 죄 사함을 기념합니다.

골 1:14 _____

※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약속하신 죄 사함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 사함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베드로와 도마의 변화를 각각 설명해 보십시오.

- 베드로(행 2장) _____

- 도마(요 20:28) _____

엡 2:16 _____

최악의 실수들, 비열한 생각들, 사악한 행동들을 했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의 용서는 완전하며, 결코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요일 1:9 _____

놀라운 미래를 기념한다

성만찬은 놀라운 미래를 기념합니다.

눅 22:16 _____

지금 우리가 성만찬을 지키는 동안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성만찬을 함께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살전 4:16~17 /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_____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_____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요 14:3 ; 고전 2:9). 그리고 내가 진실로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지 고백해 보십시오.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할 때 우리의 눈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참 신자는 주님과 함께 하는 새 만찬, 영원한 기쁨과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계 20:6 _____

성찬식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기에 그 은혜는 인간의 그 무엇으로 가늠하기 힘듭니다. 성찬식을 이용하여 나의 삶에 도움을 얻을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죄 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진실로 성만찬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이 되도록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전 11:26 / 너희가 이 을 먹으며 이 을 마실 때마다 주의
을 그가 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엡 1:7 _____

성찬식에 참여한 이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성찬식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저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 완전한 죄 사함, 놀라운 미래의 의미를 기념하십시오. 성찬식이 단지 오늘로 끝나는 특별한 느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를 심령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소서
2. 교회설립 56년을 맞는 충청교회가 복음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삶과 가정이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소서

2과 와서 쉼을 얻으라

| 초 점 |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쉼을 누리자

| 찬 송 |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 본 문 | 마태복음 11:28~30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를 쉬게 하리라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
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니 ☞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쉼을 주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 내가 예수님께 받은 초대장에 어떤 말이 쓰여져 있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 본문말씀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초대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삶의 문제와 수고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휴가, 스파, 요가 그리고 다양한 명상을 제공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육체와 감정,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는 못합니다.

※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요 3:16)

예수님의 초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초대에는 의인과 죄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삶에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육체적 쉼을 찾는 자들을 초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셔서 육체적인 안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 11:28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_____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고된 일로 인하여 녹초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의 힘든 노동과 어깨를 내리누르는 책임감에 대해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몸을 가장 잘 아십니다.

※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 40:31 _____

빌 4:13 _____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쉼을 얻고 능력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어 맡기십시오.

감정적 쉼을 찾는 자들을 초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셔서 감정적인 안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 마태복음 11:28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암송하십시오.

피곤함은 단지 육체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면도 해당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감당해야 하는 의무들은 인간의 힘을 빼앗아 갑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 단지 생각만 해도 근심과 걱정에 빠지고 맙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요 14:27

벧전 5:7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평안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십니다.

※ 빌립보서 4:6~8, 고린도후서 12:9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은혜를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감정적인 안식을 주십니다.

영적 쉼을 찾는 자들을 초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셔서 영적인 안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 11:29~30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_____
그리하면 _____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
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은 결코 참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 영적 안식을 위한 나의 노력이 헛되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 영혼에 쉼을 줍니다. 믿음은 행위나 예식이 아니라 단순히 믿을 때 생깁니다.

엡 2:8~9 _____

눅 8:48 /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
☐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삶에 지쳐있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사 44:22 / 내가 네 허물을 뱉었던 구름 같이, 네 죄를 안개 같이 없이하였으니 _____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딤후 6:12 _____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쉼을 찾으십시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분께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가히 상상할 수 없고, 영광스러운 완전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 듣게 하소서.
2.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3과 신자의 소망

| 초점 |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참 소망을 갖자

| 찬송 |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는데

| 본문 | 요한복음 13:36~14:12

☞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 ☞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 과연 어떤 소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 될 때 다른 모든 소망은 가장 적절한 형태로 표현됩니다.

※ 나의 소망이신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고백을 한 문장으로 써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자 제자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아직 이루지 못한 자신들의 욕망에 기초해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소망과 하나님 중심적인 소망의 차이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알기 위해 제자들의 질문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3:36~37

베드로는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의 결심과 소망은 선했지만, 하나님의 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때는 베드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름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베드로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결정은 실패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 원칙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살전 5:1

천국을 사모하자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이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요 14:4~5 _____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신자들이 거하게 될 처소와 이제 자신이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 떠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 14:1~3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_____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_____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 길을 아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갈지, 왜 가야 하는지, 그 밖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천국에 대한 도마의 소망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이르는 길을 압니다.

요 14:6 _____

※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요 14:7~8

빌립의 소망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요구처럼 보이지만 정작 빌립은 말씀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성령을 소유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청종해야 합니다.

요 14:9~10 /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_____
_____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_____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_____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벧전 1:23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소망이 복음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떠난 소망은 자신의 때를 고집합니다. 또한 천국에 소망을 두기 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하게 되며,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_____
- 여러분의 내면 깊숙이 세상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_____
- 여러분의 소망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_____
- 여러분의 소망이 제자들의 소망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_____

요일 3:3 _____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신자의 소망이 무엇인지 뚜렷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참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복음에 기초한 소망을 갖게 하소서
2.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4과 하나님의 말씀

| 초점 |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 찬송 |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본문 | 시편 119:103~105

⁽¹⁰³⁾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¹⁰⁴⁾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
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¹⁰⁵⁾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찬양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 119:103~105 _____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일상의 것들을 사용하여 표현해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된다

말하기가 두려울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출 4:10~12 /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_____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_____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그는 과거에 단 한 명조차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었고,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렘 1:9 _____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다

약하다고 느낄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사 40:28~31 _____

때때로 인생의 짐들이 우리의 힘을 완전히 바닥나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는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 시편 46:1, 빌립보서 4:13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참 평안을 누린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사 41:10~13 / _____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_____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_____ 참으로 _____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_____ 보라 네게 노하던 자
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
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
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_____
_____ 할 것임이니라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몰아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이 항상 두려움을 이깁니다.

히 13:6 _____

승리한다

시험이 올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고전 10:13 / 사람이 _____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_____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시험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마 4:1~11).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 야고보서 1:23~25, 요한복음 8:31~32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써 보십시오.

요 7:38 _____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평일에 성경을 전혀 보지 않고, 주일에만 성경에 쌓인 먼지를 떨고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요 1:14

엡 1:13 / 그 안에서 너희도 의 곧 너희의 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변의 능력을 주며,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의심과 두려움을 없애며, 마귀가 벌이는 어떠한 일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 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지금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 평화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매순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게 하소서
2. 충현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구역원의 가정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신자의 소망

⁽³⁶⁾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³⁷⁾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

⁽¹¹⁾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¹²⁾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3:36~14:12)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어떤 소망이 선한 것인지(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아니면 악한 것인지(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 그 소망이 자기중심적이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결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아를 올려놓는 우상숭배의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소망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 될 때 다른 모든 소망은 가장 적절한 형태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다가오자 주님은 그들과 마주 앉아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자 제자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아직 이루지 못한 자신들의 욕망에 기초해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소망과 하나님 중심적인 소망의 차이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알기 위해 제자들의 질문을 좀 더 살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요 13:36). 그러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요 13:37).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의 소망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은 아니라고 그에게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믿음보다 더 크기 때문일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의 결심과 소망은 선했지만, 하나님의 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때는 베드로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베드로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결정은 실패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 원칙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견과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의 소망은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자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요 14:4). 도마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요 14:5). 예수님은 방금 도마에게 자신이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신자들이 거하게 될 처소와 이제 자신이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 떠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아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갈지, 왜 가야 하는지, 그 밖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천국에 대한 도마의 소망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의 집에 거하게 되기를 원했고,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확실히 보장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대해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천국에 이르는 길을 압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염려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요 14:7). 빌립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요 14:8). 다시 말해 빌립의 소망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요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립이 지금까지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과 기도에 열심을 품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이 되면 그들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요 14:9~10).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유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청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내면 깊숙이 물질이나 성공, 명예와 같은 세상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망이 제자들의 소망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09년 9월

Copyright © 2009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황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 판매권